광양 황길지구 개발사업 '오리무중'

조합장 결정·총회 거쳐야 기간 연장 없으면 행정처분 시 "민간 영역 개입 어려워"

광양시 황길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장 선거 결과를 두고 현 집행부가 법정 소송을 진행하며 개발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이미 사업 기간까지 종료돼 연장이 시급하지만, 조합장이 결정되고 총회를 거쳐야 하므로 난항이 예상된다.

광양시 황길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집행부는 지난 24일 "앞서 실시된 조합장 선거는 부정의 소지가 있어 소송을 통해 시비를 가리고 조합장 결정은 법원 판결에 따르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황길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은 지난 11일 사업면적 88만6,265㎡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조합장 선출 등 11가지 안건을 상정하고 '2021년 제10차 조합원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향후 조합을 이끌어갈 제6대 조합장 선거가 특히 관심을 끌었으며, 현직 김정석 조합장과 정양기·조보용·최인태 후보 등 총 4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개회 선언과 함께 첫 번째 안건으로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의 건이 상정돼 투표가 진행됐다. 조합원 총 925명 중 정양기 후보가 427표를 얻고 김정석 후보 358표, 조보용 후보가 8표를 획득해 정양기 후보가 당선인으로 확정됐다.

개표가 끝난 후 김정석 후보 측은 '조보용 후보가 정양기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법적인 시비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원 278명의 위임장을 받은 조보용 후보가 정양기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 '후보 단일화'를 문제 삼은 것이다.

정양기 후보 측에서는 '후보 단일화는 위법이 아니며, 법적 시비를 다투더라도 당선인을 발표하고 나서 다툴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임시의장은 끝내 당선인을 발표하지 않고 정회를 선언했다.

이로써 20여 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황길지구 개발사업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조합장이 결정된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 총회의 중요한 안건 중 하나였던 '사업 기간 연장'이 의결되지 않아 행정·법률상의 손해도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황길 지구의 사업 기간은 애초 지난해 9월 20일까지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총회소집의 어려움으로 인가권자인 전남도에서 올해 9월 20일까지 1년간 조건부인 가를 해준 상황이었다.

사업 기간 연장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으로 소송과 판결, 조합장 결정, 총회의결 등의 과정을 거친다면 기한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사업 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돼 사업시행계획 취소나 공사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 벌금도 별도로 부과된다.

사업 기간 연장이 오랫동안 지연될 것으로 예상돼 지도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광양시도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민간 영역이라 쉽게 개입할 수는 없지만, 행정계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승인권자인 전남도와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취재본부=권동현 기자

순천 '시민기록활동가'가 토종 씨앗을 보존하고 있는 할머니를 찾아가 기록활동을 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순천 토종 씨앗 기록물 발간

순천시가 순천 토종 씨앗을 알리고 보존하기 위해 순천문화도시센터 '시민기록활동가'를 통해 토종 씨앗에 대한 기록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순천문화도시센터는 '순천 토종 씨앗 모임'과 연계해 지난 6월 '시민기록활동가' 발대식을 시작으로 400여 종의 순천 토종 씨앗에 관한 기록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순천 토종 씨앗 모임은 지난 2016년부터 순천 토종 씨앗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다.

'시민기록활동가' 10명은 2명이 한 팀을 이뤄 순천 전역의 토종 씨앗을 보존하고 있는 시민을 찾아가 구술 채록 및 영상 기록으로 남긴다. 올해 8월 말 서면 죽청마을과 황전면을 시작으로 상사면 초곡마을과 구례마을까지 그 활동 범위를 점차 늘려가 올해는 총 21곳의 토종 씨앗에 관한 기록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민기록활동가의 토종 씨앗에 관한 기록들은 교정·교열 및 편집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 말에 '순천 토종 씨앗' 기록물로 만들어져 발간될 예정이다.

/전남취재본부=박경식 기자

곡성 농업인 맞춤형 교육 명품농업대학 등 6개 과정

곡성군이 농업인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며 농업 전문인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27일 곡성군에 따르면 군은 전문 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해 명품농업대학과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지역특화품목 신기술실용화 현장컨설팅, 품목별 단기교육, 신규농업인 기초영농 기술교육,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다.

명품농업대학은 연간 커리큘럼에 따라 4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총 25회 108시간의 시설원예전문가 과정으로 운영한다. 멜론 스마트팜 첨단시설 견학, 멜론 실습농가 견학, 딸기 육묘기 현장컨설팅 등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농한기인 1월에서 3월에 진행되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참여 인원이 가장 많다. 농약 허용기준 강화 제도, 과수화상병 방제 등을 안내하며, 농업인들이 최신 농정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새로운 농업 시장 개척을 위해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컨설팅 교육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올해는 113명의 농업인에게 멜론, 체리, 천혜향, 감, 치유농업에 대해 현장컨설팅을 통해 선도 농업인의 영농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품목별 단기교육도 진행한다. 시장의 요구와 농가들이 재배하는 품종이 다양해지면서 영농 현장에서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수시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올해는 플럼코트 등 5개 품목에 대해 11회의 교육을 진행했으며 253명이 참여했다.

신규농업인의 연착륙을 위한 신규농업인 기초 영농 기술교육도 인기가 높다. 영농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농업기술을 배우기에 좋기 때문이다. 현재 31명의 신규농업인이 귀농·귀촌 교육, 농기계 이론 및 실습 등 10개 과정을 배우고 있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은 기초 과정을 마친 신규농업인을 위한 과정이다. 선도 농가와 귀농 연수생을 멘토와 멘티로 1대 1 매칭 하는 방식이다. 선도농과 연수생에게는 최대 7개월까지 교육 훈련비와 교수 수당이 지급된다.

곡성군은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농업 교육을 더욱 다양하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농업은 근본 산업이자 미래산업이다. 농업인들이 새로운 농업기술을 배우고, 변화하는 영농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군 농업 교육의 기반을 더욱 든든하게 다져갈 것이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한정길 기자

곡성군 명품농업대학 학생들이 딸기 육묘 현장실습을 하고 있다. /곡성군 제공

'탄소중립실현' 여수정상회의

내일부터 51개국 156개 회원도시·UN 기관 참여

여수시가 '탄소중립 실현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를 주제로 오는 29일부터 3일간 '2021 도시환경협약 여수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여수시가 주최하고 도시환경협약(UEA) 사무국이 주관하며, 51개국 156개 회원 도시와 UN 기관 등이 참여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29일부터 대면과 비대면 화상회의로 동시 개최되며, 여수시 공식 유튜브 '여수이야기'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여수시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의로 200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도시환경협약의 정신을 계승하고, 현재 우리 인류에게 직면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글로벌 기후 목표인 넷제로(Net Zero) 실현을 촉구하며, 전지구적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각국 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탄소중립정책과 비전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동향 및 과학기술, 청소년 및 사회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탄소중립의 여정을 가속화하고, 분야별 리더십 및 실천 가능한 기후 행동을 약속하는 희망의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기후 보호 선도도시로서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그려나갈 것이다"며 "나아가 남해안 남중권 12개 시·군이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공동유치에 총력을 다해 기후위기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도시환경협약은 기후변화대응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도시단위 세계 연합체로 여수시는 올해 의장도시로서 개·폐회식을 비롯한 본회의, 주제별 분과회의, 특별세션 등을 진행하며, UEA 여수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남취재본부=곽재영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광양 중마동어르신지킴이단, 후원품 전달

광양시 중마동어르신지킴이단이 최근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방문해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중마동어르신지킴이단은 고독사 예방을 위해 65세 이상 홀로 사는 어르신들과 결연을 맺어 안부를 확인하고 어르신들의 말벗이 돼주며, 정서적 지지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

이날은 구세군광양교회에서 라면 13상자, 예성건설산업에서 생필품 25세트를 후원했다.

오인옥 중마동어르신지킴이단장은 "여러 단체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대상자 발굴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권동현 기자

구례학교밖청소년, 자동차운전학원과 업무협약

구례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최근 천일자동차운전전문학원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서는 자립을 위한 활동 및 프로그램 교류, 취업 기회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 학교 밖 청소년이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센터는 운전면허 취득반 청소년의 학원비를 일부 부담해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한다.

센터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확대할 계획이다"며 "지역사회의 관심과 애정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취재본부=한정길 기자

순천 '청공해' 서면 취약계층 위문

순천시 청년봉사단체 '청공해'가 최근 서면의 취약계층 20세대를 찾아 따뜻한 사랑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최소의 회원이 참석해 각 세대를 직접 방문하며 쌀, 김, 밀키트 3종 등을 전달하고 안부를 살폈다.

'청공해'는 2018년 이웃을 돕고자 하는 20~30대 청년 80여 명으로 결성된 청년봉사단체로 매년 소외된 독거노인을 위문하고, 저소득 이웃에 연탄 나눔 봉사와 평상 기증 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우성 회장은 "작은 실천이지만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기 위해 후원을 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많은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사회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박경식 기자